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10월 5일(화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수 산 과	담 당 자	· 어업지도팀장 이재천 ☎ 440-4861 · 담당자 김 현 ☎ 440-4863			
사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

- 인천시와 군·구, 서해어업관리단, 해경 등 협력체계 구축 -
 - 육·해상 동시 단속, 수산물 위판장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·판매 행위도 단속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인천시(수산과, 특별사법경찰과)는 군·구, 서해어업관리단,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.

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단속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·운영해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·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.

집중단속 행위는 ▲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·어업을 사용하는 행위
 ▲무허가어업 ▲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
 ▲포획 금지기간·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·소지·판매행위 등으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 업체에게는 수산관계법령

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,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.

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“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,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·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” 이라고 말했다.